

# 영미 소설 강의의 중요 쟁점과 사례 연구

성경준\*

## 차례

- I. 문제 제기
- II. 영미 소설 강의 목표와 그 의미
- III. 텍스트의 선택과 구체적인 쟁점
  1. 텍스트의 선택과 중요 쟁점
  2. 각 교재에 대한 구체적 강의 사례와 보충 텍스트
- IV. 구체적인 강의 방법과 문제점

## I. 문제 제기

현재 우리나라 대학 강단에서 영미 소설 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교과목 이름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영미 소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영국 소설’과 ‘미국 소설’을 각각 다른 교과목으로 강의하는 대학도 있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는 ‘영미 주요 작가’에서 영미 소설을 다루기도 하며 사범대학 영어 교육과에서는 ‘영미소설 개관’이라는 이름으로 영미 소설을 가르치기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과목 이름만큼 그 가르치는 작가와 내용도 교수별로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영미 소설 교과목의 목표조차 교수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많은 교수님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영미 소설 교과목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영미 소설 교과목의 목표는 무엇이며, 텍스트의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텍스트는

---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문학전공 교수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필자의 시도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교과목 이름을 어떻게 하고 가르치든지 간에 모든 교수님들이 매 학기마다 항상 부딪히는 문제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영미 소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본 논문은 그러한 논의를 위한 밑바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내용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모범 답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여기에서는 다양한 강의 방법과 텍스트를 시도한 필자의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 II. 영미 소설 강의 목표와 그 의미

영미 소설 강의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영미 소설의 읽기와 토론이 한국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하는 것을 반문해 보는 것일 것이다. 우선 학생들은 영어 읽기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영어 실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필자가 보기에 영어 읽기를 연습하는 데 있어 영미 고전 소설들처럼 학생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주며 훌륭한 문장을 접할 수 있는 소재는 없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영미 소설 과목은 학생들의 영어 독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필자가 보기에 영미 소설과목은 영어의 네 가지 능력, 즉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실용영어 만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는 영미 소설 과목에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동시에 다루는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설명하겠지만 소설과 영화를 강의에서 같이 다루는 것은 교수자가 하기에 따라 영어의 네 가지 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데 실용영어에 버금가는 교수 방법이다. 가령 영화 대사를 통해 학생들의 듣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소설의 일부분을 시나리오로 바꾸는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영어 쓰기 실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영어와 소설의 흥미로운 부분을 영어로 토론함으로써 말하기 능력 또한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 필자의 강의 경험이다. 이런 점에서 영미 소설 교과목에 실용 영어의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더 나아가 영미 소설 강의의 목표중 하나를 전반적인 영어 실력의 향상에 두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또한 영어 실력의 향상과 함께 인문학적인 교양의 함양 역시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미 소설 과목에서의 인문학적인 교양의 함양은 무엇인가? 우선 일차적으로 영미 소설의 읽기를 통한 영미 중요 소설과 작가, 더 나아가 문학의 이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영미 소설에는 지금까지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중요한 사상과 사회적 문화적 쟁점들이 미하일 박친(Michael Bakhtin)의 용어를 빌리자면 “다양한 목소리”(9)를 통하여 생생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영미 소설 읽기는 문화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영미 작가와 문학의 이해를 쉽게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문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으로서 이러한 교양의 습득은 그들의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할 것이다. 교수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미 소설을 가르치는 데 있어 학생들에게 교재의 문학사적 의미를 영미 문학과 역사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인문학적인 교양의 함양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비판의식(critical reason)과 지성을 고양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소설은 다양한 등장인물을 통해 사회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설을 읽는 과정은 그러한 등장인물들과 더 나아가 작가와 독자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장을 열어준다. 그러한 과정에서 독자들은 사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능력과 지성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설은 독자들의 비판능력과 지성을 기르는데 “최고의 교재”라고 지적한 리비스(F.R. Leavis)의 말은 새겨들을 만하다(24).

물론 돈과 경쟁력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재의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속에서 그러한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는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일수록 학생들이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판의식과 지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의식과 지성은 바로 창조력으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창조력은 기존의 사고의식과 패턴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 요즘처럼 창조력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영미 소설의 강의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경영학 교과목에 못지 않는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미 소설 교수자는 학생들의 비판적 능력과 지성을 기르기 위해 학생들이 교재에 대한 다양한 비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자적으로 작품을 비평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도 가장 흥미를 갖는 교수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교수자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조직하는 데 있어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창조력과 기획력을 기르기 위해 과제도 소설의 결말을 다시 써오게 한다든지, 소설의 화자를 다른 등장인물로 바꾸어 일부분을 새롭게 쓰게 한다든지, 기존 영화를 비판적으로 보고 일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오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본다.

영미 소설 강의에서 또 하나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의 지역학적인 지식을 넓히는데 있을 것이다<sup>1)</sup>. 앞서 지적한 대로 소설은 그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제시하여 당대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중요한 움직임을 독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을 포착하여 학생들에게 당대의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이슈를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지역학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교수자는 교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영미 사회와 문화에서 핵심적인 이슈를 담고 있는 중요 작품을 섬세하게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영국 소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성장과 그 본질, 제국주의의 발전과 그 문화적 속성, 그리고 가부장 이데올로기 등 영국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중요 쟁점을 다룰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소설에서도 청교도 주의와 계몽주의, 산업 주의와 제국주의, 인종문제(인디언과 흑인문제), 미국의 꿈 등 미국 사회의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1) 영미 소설 뿐 만 아니라 영미 문학 교육에 실용 영어와 지역학적인 교육을 결합시키는 것에는 상당한 반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문학적인 교양과 비평을 강조하는 영문학자들은 현재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비판하며 영문학의 본령인 순수한 영문학 교육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순수한 영문학 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더구나 그것이 한국 학생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반문할 때 현재 학생들과 사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단견적인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문학이란 그 근본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현재 영문학이 사회의 움직임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있는 작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례 연구에서 보여주겠지만 그러한 교재의 선택은 학생들이 영미 사회를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지역학적인 교육에 있어 앞서 언급한 영화의 사용은 큰 도움이 된다. 영화는 우선 영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영미 사회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엄청난 인상을 남기므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떤 교재보다도 지역학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교재와 그 교재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여줄 때는 영화가 학생들이 교재를 독창적으로 비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수자는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학생들이 영화를 먼저 보게 되면 그 영상에 압도되어 영화에 따라 교재를 비평하고 심지어 장면에 대한 상상력도 영상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재를 충분히 숙지하고 독자적으로 비평할 수 있을 때 영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영화 자체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영화까지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성취하기는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 안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영미 소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의식을 가지며, 새로운 교수 방법과 교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 사례는 필자의 영미 소설 교육의 경험을 일부 정리해 놓은 것이다. 필자의 영미 소설 교육은 '미국 소설' '영미 주요 작가' '영미 단편 소설' 등 학과에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교과목 이름 하에서 이루어 졌다. 그러나 교과목이 어떤 이름을 갖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영미 소설을 한국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이며, 그런 점에서 다음 사례는 영미 소설 교육에 관련된 교수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다룬 교재 중 영국 장편 소설 2개, 미국 장편 소설 3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다.

### Ⅲ. 텍스트의 선택과 구체적인 쟁점

#### 1. 텍스트의 선택과 중요 쟁점

텍스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 영국과 미국 사회를 형성한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쟁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그러한 쟁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텍스트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교수자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교재 선택 역시 교수자의 취향과 학문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영미 사회에서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논의하는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널리 알려진 소설을 선택하는 것이 학생들의 흥미를 배가시킬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부수 교재를 구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텍스트를 선택하는 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년과 학생 수준에 따라 텍스트의 양과 다루는 내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가령 장편 소설은 2학년에 게는 다소 어렵고 4학년의 경우 취직 등 여러 가지 부담이 많아 쉽게 따라올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시간과 내용을 가진 수업일지라도 학생수준에 따라 양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장편 소설에 있어서도 400-500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없으므로 그 중에서 전체 소설 중 4분의 1 정도의 중요한 장(chapter)를 선택하여 읽는 방법도 효과적이었다. 장편소설 중에서 읽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전체 학생을 3-4 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스터디를 시켜 일정 부분씩 요약시키고 그 부분에서 논쟁적인 구절에 대해 소설 전체의 내용과 관련시켜 10-15분 정도 발표를 시켰다.

이 글에서는 영국 쪽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제국주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두 작품을 설명하고, 미국 쪽에서는 청교도주의와 자유의 문제, 인디언과 흑인 등 인종 문제가 잘 드러나 있는 세 작품을 논의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대학원 영미 소설 수업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지만 사실 대학원 교육의 많은 부분도 학부 수업을 참조하면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대학원 수업은 학생들이 전문적인 학자나 비평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비평서를 훨씬 많이 다루고 심도깊

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선택 소설 5 개>

영국의 자본주의와 산업주의 문제:

Charles Dickens, *Great Expectations* (Penguin)

(Film: directed by Joseph Hardy, 1965)

- 영국의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 영국의 사회 변동과 신사의 개념
- 산업주의와 도시의 문제
- 성장 소설의 개념
- 영국과 식민지와의 관계

제국주의의 문제:

Joseph Conrad, *Heart of Darkness* (Signet)

(Film: <The Apocalypse> directed by Francis Kopola, 1985)

- 제국주의의 근본적 속성
- 제국주의와 기독교
- 문명과 야만의 의미
- 서구 백인성과 타자의 개념
- 화자와 작가의 태도의 의미
- 제국주의와 월남전의 의미

미국의 인디언 문제:

James Fenimore Cooper, *The Last of the Mohicans* (Penguin)

(Film: directed by Michael Mann, 1994)

- 미국에서의 인디언 문제
- 미국 문화에서의 인디언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  
(D. H. Lawrence의 견해에 대한 설명과 토론)

- 호크 아이(Hawk Eye)와 변경 신화의 모습
- 영화의 여주인공의 대치에서 나타나는 인종과 여성문제
- 미국과 영국의 갈등과 심리적인 문제

청교도와 자유의 문제:

Nathaniel Hawthorne, *The Scarlet Letter*

(Film: directed by Roland Joffe, 1992)

- 미국 건국과 청교도 주의
- 미국 문화에 있어서 청교도의 의미  
(D. H. Lawrence의 설명)
- 청교도인의 죄의식과 그것의 공동체적 양상
- 공동체와 자유의 갈등 문제
- 영화에 나타난 줄거리 변형의 의미
- 미국 문학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의미

미국의 흑인 문제:

Richard Wright, *Native Son* (Harper & Row)

(Film: directed by Jerrold Freedman, 1995)

- 미국 사회내의 흑인의 상황
- 비거가 한 살인의 의미
- 미국 흑인의 이중 의식
- 각 등장 인물의 의미
- 작가의 비거(Bigger)의 의식에 대한 태도

## 2. 각 교재에 대한 구체적 강의 사례와 보충 텍스트

Charles Dickens, *Great Expectations* (Penguin)

(Film: directed by Joseph Hardy, 1965)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핍(Pip)의 성장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빅토리아조의 신사 개념이다. 이것은 당시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었던 계급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핍이 신사로서 성장하는 과정과 모습은 영국에서 산업주의와 함께 부르주와 계급이 주류 계급으로 어떻게 자리잡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신사 개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원작보다는 영화가 훨씬 더 생생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원작도 신사의 개념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인간, 가령, 포켓씨(Mr Pocket)같은 인물을 잘 재현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는 짧은 대화와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해를 훨씬 높여준다.

신사의 개념과 함께 중요한 점은 각 등장인물이 산업주의의 사회 변동 속에서 어떤 계급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스 헤비삼(Miss Havisham), 제거스(Jaggers), 핍(Pip), 조(Joe)에 대하여 토론을 하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를 한다. 이것에 대한 이해는 현재 영국이 어떤 계급 변동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 점을 논의할 때도 영화가 훨씬 생생하게 학생들에게 다가온다. 디킨즈의 소설은 쉽고 흥미롭기는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해내는 것은 학부 학생들로서 쉽지 않다. 이때 영화를 보여주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가령 첫 번째 묘지 장면이라든지, 핍의 하숙집, 또는 런던의 거리 모습은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주는데 유용하다.

사회 변동에 대한 토론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조의 역할이다. 시골 대장장이인 조의 모습은 런던의 타락한 다른 신사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된다. 디킨즈가 어떤 이유로 그를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당시 사회 변동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문제에 덧붙여 런던과 핍의 고향을 당시 산업 사회의 발전 속에서 비교해보는 것은 흥미롭다. 그것은 산업주의 속에서 도시와 소읍, 그리고 시골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있게 한다. 조의 심성과 제거스의 인간성의 비교, 제거스의 서기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상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그런 문제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식민지인 호주와 영국과의 관계이다. 이 작품에서 메그 위치의 운명과 그의 사회적 위치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가 핍을 신사로서 성

장시켜 가는 것이 제국주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학생들과 논의하면 그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영화는 원작에서 잘 눈에 띄지 않던 이러한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학생들과의 토론을 훨씬 쉽게 한다.

조셉 하디의 이 영화와 함께 학생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영화는 1997년 할리우드에서 나온 〈위대한 유산〉이다. 이 영화는 원작을 상당히 개작하여 작품의 배경을 현대의 뉴욕으로 하고 있으며 등장 인물의 사회적 위치나 직업도 현대적으로 개작시켜 놓았다. 하지만 등장인물의 성격이라든지, 사회 변동 속에서 인간의 움직임 등은 원작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들은 최신판인 이 영화에 대하여 훨씬 더 흥미를 보였다. 따라서 만약 조셉 하디의 영화를 구할 수 없다면 이 영화를 보여주고 토론하여도 학생들간에 재미있는 토론을 이끌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원작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앞서 논의한 조셉 하디 영화의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Joseph Conrad, *Heart of Darkness* (Signet)

(Film: 〈The Apocalypse〉 directed by Francis Kopola, 1985)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국주의의 문제이다. 커츠(Kurtz)의 모습은 제국주의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지를 잘 보여준다. 원작에 충실한 영화가 없어 필자의 강의에서는 원작과 〈지옥의 묵시록〉을 비교하였다. 코폴라의 영화는 베트남 전을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원작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원작과는 서술 구조라든지 작품의 주제가 동일하다. 뛰어난 영상미와 함께 현대사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큰 흥미를 갖는다. 콘래드의 작품과 코폴라의 영화를 비교하면서 제국주의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계속 고양시킬 수 있다.

이 논의에서 중요한 문제는 문명과 야만의 개념이다. 커츠와 화자인 말로우(Marlowe)를 통해 나타나는 문명과 야만의 개념은 제국주의의 식민주의의 담론을 뒷받침해준다. 말로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야만의 개념을 상세히 살펴보면 말로우와 커츠, 더 나아가 콘래드의 시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쉽게 드러난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담론이 가

진 허구성과 문제성을 같이 토론하면 심도깊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원작은 제국주의에 대해 모호하게 제시해놓은 부분이 많기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그것을 주지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코폴라의 영화 역시 화자와 커츠의 모습, 그리고 대화 속에서 서구적 시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콘래드와 코폴라의 시각을 논의하면 학생들에게 훨씬 흥미로운 토론을 시킬 수 있다.

문명과 야만의 개념을 논의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기독교의 문제이다. 이것은 커츠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갔다가 야만인으로 변신하였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기독교가 제국주의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는 커츠와 식민주의자들이 가진 개념, 즉 야만을 어떻게 문명화하는 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문제 등을 논의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말로우의 시각의 한계,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인간의 “보편적 악”으로 돌리는 작가인 콘래드의 시각의 한계이다. 비판적 작가였던 콘래드조차 그러한 시각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학생들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식민주의 담론 속에서 작가가 당대의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포섭되고 저항하는지도 꼭 논의해 볼 사항이다.

이 작품과 영화를 비교하면서 흥미로운 것은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 다름에도 작가들의 동일한 시각을 양자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베트남 전을 영화화한 코폴라 역시 콘래드와 동일한 문제를 느끼고 그것을 고민했음을 의미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콘래드와 동일한 시각의 한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sup>2)</sup>. 학생들과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 식민주의 담론의 현재성에 대하여 학생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할 수 있다.

James Fenimore Cooper, *The Last of the Mohicans* (Penguin)  
(Film: directed by Michael Mann, 1994)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디언이 어떻게 형상화됐고 그것이 의미하는

2) 소설과 영화와의 차이는 있으며 그것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것은 원작과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다. 가령 소설은 격자식 서술 구조와 아이러니한 언어의 사용을 통해 독자들에게 제국주의의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는 반면, 영화는 직접적인 화면을 통해 제국주의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는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소설만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는 듯 하다.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웅카스(Uncas), 칭가치국(Chingachgook)에서 나타나는 이상화된 인디언, 그리고 그것에 대조되는 마구아(Magua)의 교활하고 악마적인 인디언의 모습에서 백인이 만든 인디언 이미지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생들과 그 문제를 논의하면서 로렌스(D. H. Lawrence)의 『미국 고전 문학 연구』(*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의 제 5장 “페니모어 쿠퍼의 가죽 각반 소설”(“Fenimore Cooper’s Leatherstocking Novels”)의 내용을 설명하면 원작에 대해 훨씬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듯 싶다.

이 작품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내티 범포(Natty Bumppo)와 칭가치국의 우정이다. “문명을 떠난 백인 남자와 유색인 남자의 황야에서의 우정”이 미국 문학과 영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면 학생들이 큰 흥미를 갖는다. 내티와 칭가치국의 우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들의 관계 속에서 언어가 아니라 “눈빛만으로 형제처럼 통한다”(85)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생들과 토론하면 그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학생들과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남녀 관계가 아닌 그러한 우정이 여러 미국 문학 작품과 영화에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해 볼 수 있다.

원작이나 영화 모두에서 우리는 미국인인 내티와 영국인인 헤이워드(Heyward)가 서로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국과 미국과의 심리적 갈등, 그리고 쿠퍼 작품의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학생들과 논의해볼 수 있다. 특히 원작과는 달리 영화에서는 헤이워드가 화형 당해 죽는데 영국인에 대한 미국인의 “복잡한” 감정이 반영되어 그런 것이 아닌지 토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인인 내티를 영국인 헤이워드와 대조되는 자연인으로 재현하려 한 것이 혹시 미국인의 자기 정체성 규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

영화에 있어 흥미로운 점은 내티와 코라(Cora), 엘리스(Alice)와 웅카스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 원작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원작에서 내티는 남녀 관계에는 무관심하며, 웅카스와 코라, 엘리스와 헤이워드가 짝을 이룬다. 더구나 영화에서는 코라가 원작에서 제시된 것처럼 흑인 피가 흐르는 모습이 아닌 도시적인 백인 여성으로 등장한다. 영화에서 그녀는 내티와 함께 살아남고 엘리스는 웅카스와 함께 죽는다. 원작에서 살아남은 엘리스가 영화에서는 죽고 원작에서

죽는 코라가 영화에서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원작에서 나타나는 “인디언과의 잡혼(miscegenation)”에 대한 두려움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만든 이 영화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을 학생들과 토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원작의 마지막 부분, 30장에서 33장까지를 학생들에게 읽히면서 토론하면 학생들의 이해가 쉽다. 흑인 피가 흐르는 코라와 순수한 백인인 엘리스가 원작에서 재현되는 모습을 통해 여성과 인종에 대한 쿠퍼의 시각, 더 나아가 당시의 여성과 인종 담론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sup>3)</sup>.

소수 민족에 대한 미국인의 의식에 관련해서는 에이미 탄(Amy Tan)의 소설인 『조이 럭 클럽』(*Joy Luck Club*)이 큰 도움이 된다. 웨인 왕(Wayne Wang)이 영화화한 작품을 보면 쿠퍼의 작품과는 다르게 등장인물들이 정형화된 모습이 아닌 살아있는 한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타 인종을 재현하는 문제에 있어 쿠퍼의 소설과 영화, 그리고 탄의 영화를 비교하여 어떻게 재현의 양태가 다른지 토론해 볼 수도 있다.

Nathaniel Hawthorne, *The Scarlet Letter*  
(Film: directed by Roland Joffe, 1994)

먼저 학생들에게 미국 건국과 청교도, 청교도의 신학적 배경과 원죄설, 그리고 청교도의 후대への 영향 등을 설명하면 작품과 미국 문화를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청교도가 미국 역사 속에서 가진 긍정적 의미와 더불어 그들이 가진 편협함과 배타성을 이해시키면 학생들에게 헤스터의 고난을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원작의 1장과 12장은 호손이 생각하는 청교도 사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학생들과 논의하기 좋은 부분이다.

원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교도의 본질과 그 속에서 죄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딘즈데일(Dimmesdale)과 헤스터 프린(Hester Prynne)의 사

3)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포레스트 로빈슨(Forrest Robinson)의 글 “불확실한 경계: 『최후의 모히칸족』에 나오는 인종 성, 문명” (“Uncertain Borders: Race, Sex, and Civilization” in *The Last of the Mohicans*)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때때로 학생들에게 훌륭한 비평문에 나오는 견해를 소개하거나 학생들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면 훨씬 깊은 토론이 가능하다. 대학원 수업은 이것이 용이하나 학부 강의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다.

랑, 그리고 헤스터의 인내와 극복이 자유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논의해 보면 학생들에게 깊은 이해를 시킬 수 있다. 필자는 헤스터의 A가 상징하는 바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흥미롭고 포괄적인 토론을 할 수 있었다. 영화는 원작과 상당히 다르지만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이해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원작과 영화에서 이러한 면을 논의한 후 학생들에게 헤스터를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로렌스가 주장한 “악마”(devil)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다<sup>4)</sup>.

영화에는 원작의 줄거리에 없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마녀 재판이나, 인디언 습격 장면은 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면은 일차적으로 감독이 관객의 흥미를 북돋우기 위해 넣은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호손이 원작에서 암시하고 있는 청교도 사회의 본질, 즉 그 편협성과 타자에 대한 배제를 영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에서 나타난 원작에서 없는 것이 단지 관객의 흥미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원작에서 암시한 것을 영상화한 것인가를 논의하면 학생들이 큰 흥미를 갖는다. 이 작품과 영화를 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헤스터, 덤즈데일, 칠링워쓰(Chillingworth)의 죄, 더 나아가 청교도 사회의 죄는 무엇인가일 것이다.

이 작품을 논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호손의 단편, “메리 마운트의 메이 폴”(“The Maypole of Merry Mount”)과 영화 <크루서블 The Crucible>이 있다. 이 단편과 영화는 모두 호손이 『주홍글씨』에서 이야기하는 청교도 사회의 문제점과 그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하는 인간의 자유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학생들에게 『주홍글씨』와 비교하면서 그러한 점에 대해 짧은 에세이를 쓰게 할 수도 있다.

Richard Wright, *Native Son* (Harper & Row)

(Film: directed by Jerrold Freedman, 1995)

4) 로렌스는 헤스터의 사랑을 미국인의 무의식 속에 감춰어진 병적인 이성(idea) 추구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파악한다. 앞서 쿠퍼에 대한 논의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로렌스의 『미국 고전 문학 연구』는 학부생들에게 미국 소설을 가르치면서 미국인의 집단 무의식에 대해 논의하기에 아주 적합한 교재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받은 흑인들의 이중의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거(Bigger)의 의식을 학생들과 논의함으로써 가능하다. 흑인들이 노예 해방이 된 후 역사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학생들이 더욱 쉽게 이해한다. 영화는 비거의 복잡한 의식의 흐름을 주인공의 행동을 통해서만 나타내고 있어 원작에서 그리는 풍부한 의식의 흐름이 잘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영화는 흑인들의 상황에 대해 훨씬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작품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등장 인물, 가령, 비거와 그의 가족, 쟈(Jan), 메리(Mary), 달톤씨(Mr Dalton), 달톤씨 부인(Mrs Dalton), 그리고 맥스(Max)가 미국 사회 속에서 갖게 되는 의미를 논의해야 한다. 특히 비거가 메리를 살인한 후 갖게되는 의식, 달톤 부인의 눈땀, 그리고 맥스의 주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논의하면 학생들에게 깊은 이해를 시킬 수 있다. 영화는 원작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하나 비거의 의식과 원작에서 나타나는 상징을 제대로 재현하고 있지 못하다. 원작의 그러한 점이 영화에서 어떻게 재현되지 못했는가를 논의하면 학생들이 작품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흑백 문제의 이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불타는 미시시피 Mississippi Burning>를 보게 하면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라이트의 작품은 흑인 남성 작가의 입장에서 인종문제를 본 것이므로 남성의 시각으로서 한계가 있다. 이 작품에서 나오는 흑인 여성, 즉 비거의 어머니나 누이, 그의 애인 베시(Bessie)의 묘사는 흑인 남성 작가로서 여성을 타자화하는 경향을 보인다<sup>5)</sup>. 이러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흑인 여성작가로서 흑인 여성이 어떻게 이중의 억압, 즉 백인 사회의 억압과 함께 흑인 남성의 억압을 받는지를 섬세하게 그린 영화 <컬러 퍼플 The Color Purple>을 학생들에게 보게 하면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동시에 좀 더 커다란 시각에서 미국의 흑인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다.

5)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트루디어 헤리스(Trudier Harris)의 「토박이와 외국태생의 딸들」("Native Son and Foreign Daughters")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면 깊은 이해와 함께 흥미로운 토론이 가능하다. 라이트의 흑인 남성 작가로서 한계를 논의하며 토니 모리슨을 비롯한 최근의 흑인 여성 작가의 부상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 작품의 특징을 논의하면 흑인 문학을 학생들에게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IV. 구체적인 강의 방법과 문제점

필자의 영미 소설 강좌는 강의와 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문학사적인 내용이나 문화적인 쟁점을 설명하고 교재의 중요 부분을 번역할 때는 강의로서 진행하였고, 교재 내용에 대한 비평은 대개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토론은 발표자가 준비된 내용을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하며, 필자는 중간에 토론을 정리하고 새로운 문제를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발표자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보통 한 그룹에서 대표 발표자가 한 명 있는데 그 학생은 원작과 영화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 두 개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룹의 나머지 학생들은 패널이 되어 그 문제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였다. 그룹에 속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패널들은 그 문제에 대해 발표자와 다른 의견을 준비해와 제시하게 하여야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필자는 발표자와 패널들이 발표내용을 필자에게 3-4일 전에 제출하게 하고 발표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였다. 그렇게 해야만 토론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강의가 되었다. 특히 토론을 이끄는 교수가 수시로 중요한 쟁점에 대한 지적과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야 흥미롭고 정리된 토론이 된다.

영화는 강의 시간에 다 볼 수 없으므로 시청각 도서관에 맡겨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보게 하였고 꼭 같이 관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강의 시간을 할애하여 같이 보았다. 영미 소설 강의는 대개 어느 대학이나 일 주일에 3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강의 시간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 만약 강의 시간이 일 주일에 두 시간이라면 학생들이 스스로 영화를 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강의 시간에 같이 보는 것은 학생들의 듣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으므로 캡션(caption)이 되는 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영화 대사를 정확히 들어야만 폭넓은 이해와 토론이 가능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학생들의 듣기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은 영화 대사를 전부 들어야만 강의 시간에 참여하고 토론 내용을 이해한다는 사실 때문에 필사적으로 완벽히 들어려고 노력하였다. 학생들에게 영화 뿐만 아니라 미국인 성우가 소설을 낭독한 것을 녹음



한 테이프를 가끔 들려주거나 학생들에게 소개하면 학생들의 영어 청취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필자는 중간 시험대신 학생들로 하여금 소설의 중요 부분 중 자신이 원하는 2장(chapters) 내지 3 장을 골라 기존 영화와는 다르게 자신의 작품 해석에 따른 시나리오를 써오도록 시켰다. 그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소설 텍스트의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그 과제는 기존 영화의 원작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해야만 가능하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작품과 영화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창작 과정을 이해하게 하고 창조력과 기획력을 기르며 영어 글쓰기 실력을 늘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필자의 생각으로 이 과제는 기말 시험대신 부여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전체 내용을 이해한 후 시나리오를 쓰게 되어 훨씬 풍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물론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 중 하나는 필히 실시하여 학생들이 교재를 성실히 읽었는지를 번역과 토론 문제들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필자는 학기에 따라 중간 시험 대신 다른 과제를 낼 때도 있었다. 가령 학생들이 원하는 작가와 감독을 한 사람씩 골라 학생 자신이 기자가 되어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인터뷰를 한 후 그 내용을 영어로 써오도록 시켰다. 그럴 경우 앞서 설명한 시나리오 숙제는 그 범위를 경감시켜 작품과 영화의 상호 텍스트성에 구애 받지 말고 한 장만 골라 영어로 써오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과제를 낼 때 중요한 사항중 하나는 중간 시험 후 2-3주까지 과제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그 숙제를 하게 되는 것은 중간시험 이후이어야 가능하며,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그 사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제들의 목표는 결국 훌륭한 시나리오나 인터뷰를 쓰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영미 소설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그들의 비판적인 능력과 창조력, 더 나아가 상상력, 기획력 그리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주어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의 창조력과 기획력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러한 창작력

과 기획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필요한 영어 과제에 있어서는 능력상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몇 명씩 나왔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당사자들의 자신감이 크게 상실된다. 따라서 그런 학생들은 따로 격려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과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Bakhtin, M. M. *The Dialogic Imagination*. Ed. Michael Holoquist. Austin: U of Texas P, 1981.
- Conrad, Joseph. *Heart of Darkness*. NY: Signet, 1974.
- Cooper, James Fenimore. *The Last of the Mohicans*. Harmondsworth : Penguin, 1986.
- Dickens, Charles. *Great Expectations*. Harmondsworth: Penguin, 1982.
- Hawthorne, Nathaniel. *The Scarlet Letter*. New York: Norton, 1988.
- Lawrence, D. H.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Penguin, 1977.
- Leavis, F. R. F.R. Leavis: 'Valuation in Criticism' and Other Essay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6.
- Perkins, George and Barbara Perkins. *American Tradition in Literature: Shorter Edition in One Volume*. 8th Ed. New York: McGraw-Hill Book, 1995.
- Robinson, Forrest. "Uncertain Borders: Race, Sex, and Civilization in The Last of the Mohicans." *Arizona Quarterly* (Spring, 1991): 47-61
- Wright, Richard. *Native Son*. New York: Harper & Row, 1966.

Abstract

## Issues in British and American Novel Class and A Case Study

Kyungjun Sung

This essay aims to investigate some issues in British and American novel class and explore how the teachers of British American novel class can effectively conduct their teaching. For this purpose, I present some objectives of British and American novel class and examine several texts and methodologies I have used in my class. Especially this article tries to interrogate several topics and problems teachers might face while teaching British and American text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use of film and the combination of three fields, i.e., teaching British and American novel, practical English, and area studies. I discuss Charles Dickens's *Great Expectations*, Joseph Conrad's *Heart of Darkness*, James Fenimore Cooper's *The Last of the Mohicans*, Nathaniel Hawthorne's *The Scarlet Letter* and Richard Wright's *Native Son* to specifically show my teaching methods. Through this discussion this article ultimately tries to demonstrate the new direction of British and American novel education to catch up with the current needs of Korean universities and society.

Key Words : British and American Novel, Case Study, teaching method,  
Korean students,

주제어 : 영미소설, 시험학습, 학습법, 한국학생.